

시민 건강·안전 지키기...전쟁터 방불 응급실 실 틈 없다

의료 공백 속 추석 연휴 광주 응급실 지키는 의사·간호사·구급대원

민족 대명절인 추석 명절에 친구·직장상사·동료 등에게 전하는 올해 명절 인사말 트렌드는 '아프지 마세요'. 올 추석에 의료공백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응급실과 119안전센터에서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광주·전남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과 구급대원이 있다.

윤대홍 의사-명절 환자 2~3배...20년동안 연휴 마다하고 응급실 사수
박정은 간호사-"누군가는 해야할 일...가장 위급할 때 즉각 도와줘야죠"
오진우 구급대원-월 새 없이 출동 또 출동..."응급환자 긴급 후송 최우선"



윤대홍 광주현대병원 응급실 의사



오진우 동부소방대인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박정은 광주현대병원 응급실 간호사

◇2차병원 응급실 의사=광주현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윤대홍(45)씨는 20년 동안 연휴를 마다하고 응급실을 지켜 왔다.

올해 명절에도 이틀에 걸쳐 응급실 비상 대기 근무를 할 예정이라는 윤씨는 명절 근무를 앞두고 체력을 비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

윤씨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응급실은 '전쟁터'가 된다. 광주현대병원 응급실은 10개 병상이 있으며 평일 기준 하루 평균 40~50명, 주말 80~90명이 찾아오지만, 명절연휴에는 200여명씩 밀려온다는 것이 윤씨 설명이다.

윤씨는 "명절 근무가 힘들어 사직하는 의사가 적지 않다. '땀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며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 등으로 밀려나오는 사례가 많아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명절 전날 하루에 몰아서 가족을 만나고, 응급실로 복귀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이라도 응급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윤씨는 "응급의학과는 일이 고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지원자가 없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2차병원 응급실 간호사=광주현대병원에서 6년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은(여·29)씨는 올해 추석 연휴 중 3일에 걸쳐 응급실 비상 대기 근무를 할 예정이나, "항상 하던 일이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웃었다.

명절에도 주간 7시간, 야간 10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야 하지만, 박씨는 연휴 기간 휴무를 최대한 쓰지 않고 기꺼이 근무를하겠다고 나섰다.

누군가는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번 명절이 여느 때보다 더 고될 것 같라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응급실 인력이 줄어들면서 중증 환자까지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잦아져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때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는 퇴원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병상이

한정된 응급실이 포화되는 일이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박씨는 "과거 코로나 때도 응급실이 포화되는 일은 충분히 경험한 적 있다. 이번이 특별히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니다"며 "당초 응급실 간호사를 지원한 것도 의료인으로서 응급 상황이 터지더라도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가장

위급할 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의료 활동을 하겠다는 책임감을 원동력 삼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며 "응급실이 포화돼 치료가 다소 지체될 수도 있지만, 의료진을 믿고 치료 활동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소방 구급대원=광주동부소방대인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오진우(43·소방장)씨는 명절 연휴를 앞둔 12일에도 실새없이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건의 출동을 마친 오씨는 10여분도 쉬지 못하고 다음 신고 위치로 출동하기 위해 구급차에 올라탔다.

오씨를 비롯한 광주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명절 연휴 동안 '특별 추석 경계근무'를 선다. 이 기간에는 소방관들의 연가가 제한되며 서장, 과장 등 고위 직급의 소방관들도 앞장서서 당직 근무를 하며 평소보다 안전 관리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가족 단위로 이동하다 보니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으로서, 명절만 되면 평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번 명절에는 응급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외래 진료가 안 되므로 응급실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인력이 부족해 구급 이송이 어려워진 데 따른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소방본부는 이에 대비해 명절에 진료 가능한 병원들을 질환별로 분류해 명단을 작성해 두었으며, 증상별로 즉시 이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두었다고 한다.

오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질환 등 중증 환자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 복통이나 두통, 팔과 다리 경직 등 경증 환자들은 가급적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상비약을 이용하되 연휴가 끝난 이후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 25일 직선제 총장 선거 모든 학생이 투표권 갖는다

반영비율 2%→10%로 대폭 상향

전남대 전체 학생이 오는 25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12일 전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장선거에서 그동안 간선제로 운영해온 학생 선거인 투표방식을 직선제로 바꿨다.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전남대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총장선거에서는 총학생회가 학생선거인을 추천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간선제가 시행됐다.

학생 선거인의 투표 반영비율도 기존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해 총장 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다.

대학 구성원별 투표 반영비율은 교원선거인

100%를 기준으로 강사 2.5%, 직원 17%, 조교 3.5%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송진규 건축학과 교수, 김재국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한은미 화학공학부 교수, 이근배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자들은 구성원을 상대로 합동연설회를 열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을 본격화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24일까지이며 25일 온라인 투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선거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과반 득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 후보자 등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현 정성택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14일까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병원서 폭발물 터트린 70대 기소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법정에 서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죄·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으로 A(7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느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제폭발물을 만든 후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내부가 불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 유죄

항소심서 방조 혐의 징역형 집유...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예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주가조작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수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역시 '전주'의 의심받아 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